

데이브 매튜슨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7

요한계시록 3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에 관한 Dr. Dave Mathewson의 강의입니다. 7과,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사데의 편지에 대한 약속. 우리는 사디스가 살아있다는 평판을 얻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죽었습니다. 살아 있다는 평판에 대해 말할 또 다른 것. 첫째, 이것은 그들만의 평가가 아니라 아마도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살아 있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신이 살아 있다는 이름이나 명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약간의 과장, 심지어 아이러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책의 나머지 부분, 특히 19-22장의 끝 부분에서 명확하게 취해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약속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역사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거나 언급하는 것입니다. . 첫째는 이것을 이기면 흰 옷을 입히고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언어는 아마도 7장처럼 본문에서 찾은 내용을 선택할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는 일종의 예비적인 계시, 즉 계시의 순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21장과 22장의 완전한 설명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좌 앞에 승리를 거두고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특히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내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었다. 그래서 여기 역사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9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19장의 시작 부분에서 설명할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 나중에 다루게 될 곳입니다.

19장 8절에서는 다시 영광을 받은 성도들, 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7절을 읽으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자기를 예비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느니라 그녀가 입는 것.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백성인 교회의 형상이자 상징이며, 이제 그들에게 입힐 아마포나 밝은 흰색 아마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이제 사데 교회에 하신 약속, 즉 그들이 이기면, 즉 타협을 거부하면 흰 옷을 입겠다고 하신 약속에도 포함됩니다. 의복은 아마도 그들의 최종적인 구원과 완전함의 상징일 뿐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승리와 옹호의 상징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로마제국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실하게 증거하였으므로, 그들의 승리와 순결의 상징으로 흰옷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변호도 소유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들은 순결과 옹호와 승리의 흰옷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5장부터 시작하여 여러 책이나 두루마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책이라는 책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문자적인 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고 안전함을 상징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들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책은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구원의 확실성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즉,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강조점은 균형을 잃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삭제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이 언어는 리토테(litotes)라고 불리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반대말이나 부정문을 강조하여 무언가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잘 지내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쁘지 않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잘하고 있지만 그 반대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은 그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겨내고 건디면 종말론적인 구원의 목표에 도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데 교회의 경우,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될 생명책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은 그의 교회들에게 현재의 승리를 위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최종 종말론적 구원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데 교회의 경우, 그들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경고로, 이교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하지 말거나 그 일부가 되지 말라는 경고로 읽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로마와 사악하고 신이 없는 세상에 쏟아 붓는 심판의 환상과 재앙과 심판의 환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타협하고 적응하십시오.

그러나 다시금 순결을 지키는 자, 신실한 증언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종말론적 구원, 즉 흰옷을 입고 승리하며 입증되고 또한 미래에 종말론적 구원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음 교회는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성은 역시 이 순환로에 있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전 도시인 사데에서 조금 남동쪽이었을 것입니다. 사르디스와 함께 서기 17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곳도 황폐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황제 숭배와 기타 이교 신 및 종교의 영향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중요한 점은 서머나와 함께 어떤 책망이나 정죄도 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유일한 교회라는 점입니다. 서머나처럼 신실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나는 당신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느니라.

나는 네게 힘이 거의 없는 줄을 알면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자칭 유대인이 아니나 거짓말하는 자들을 만들리니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리어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인내하라는 나의 명령을 지켰은즉,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나는 곧 갈 것이다. 아무도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당신이 가진 것을 붙잡으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는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또한 그 사람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읽어보면 필라델피아는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능력이 거의 없다고 묘사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는 그들이 필라델피아 시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별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이 받고 있는 박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증거에 있어 신실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칭호를 주목하십시오. 3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그들을 거룩하다 일컬으시는 이는 신실하시고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이니라. 흥미롭게도 이것은 구약성서에 대한 또 다른 암시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와 열린 문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이사야서와 22장에 나오는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 엘리아김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 계통의 왕좌에 앉은 왕.

2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22장 24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할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그에게 네 옷을 입히리라.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매십시오. 흥미롭게도 1장에서 예수님이 묘사된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권위를 그분께 넘겨주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아버지의 그 언어를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어깨에 다윗 집의 열쇠를 매어 주겠다.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닫으신 것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22절이었습니다.

그러면 23세에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아넣을 것이다. 그는 그 아버지 집에 영광의 씨가 될 것이다. 그의 가족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자손과 파생물입니다. 다시 한 번 자손이나 씨앗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또한 구약성서와 다윗 언약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릇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 모든 작은 그릇들입니다. 그 맥락은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으로서 엘리야김이 이제 다윗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 즉 궁전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는 묘사되고 엘리야김은 거의 관리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누가 궁전 자체에 들어가거나 제외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에서 엘리야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되니까? 우선, 우리는 이미 David와의 연관성을 몇 번 언급했습니다. 흔히 다윗의 왕좌에 앉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후반부에 예수께 적용되는 소위 왕실 시편의 여러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되는 사실은 다윗의 큰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열쇠와 권세를 가지신 궁극적인 분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열쇠는 왕국에 들어가거나 왕국에서 제외되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출범시키신 다윗 왕국으로부터. 그러므로 다윗의 참 자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 나라에서 제외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출범시키신 다윗 왕국으로부터.

더욱이 이사야 22장은 이사야 9장과 6장 7절의 관점에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읽는 유명한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9장 6절부터.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음이라. 우리에게는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입니다. 이것은 22장에서 엘리야김에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평화의 왕자. 그의 정부와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그분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제 이사야 22장은 아마도 9장을 고려하여 요한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좌에 앉을 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를 영원히 확립하고 공의로 통치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부는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왕으로서 22장의 권위를 취하십니다.

누가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게 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권리, 열쇠,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사야서 22장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엘리야김을 일종의 모형론적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유형적으로 더 큰 아들을 기대합니다. 실제로 다가올 누군가의 절정적인 표현을 제공할 사람. 그리고 다윗 왕국에 포함되고 배제되는 권위를 상징하는 열쇠를 취하십시오.

그러므로 엘리야김은 앞으로 나올 더 큰 아들의 유형이나 모형, 패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사야 22장을 9장에 비추어 읽으면 더욱 확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22장과 23장에서 흥미롭게도 주목하십시오. 22장에서 우리는 23절에서 엘리야김이 나무뭇에 비유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아넣으리라. 그러나 나중에 2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는 견고한 곳에 박힌 말뚝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잘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말뚝이 복원되어야 할 때를 예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미래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특히 이사야 9장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와 다윗 사이의 연관성.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엘리아김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모형적 연관성.

그리고 22번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페그가 복원될 것이라고 거의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9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 22장의 궁극적인 성취로 식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아들로 오십니다. 이제 그는 열쇠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확립되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20장과 다음 장에서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낳는다. 그리스도는 그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흥미롭게도

1장과 8절에서는 예수께서 왕국의 열쇠를 가지지 않으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죽음과 하데스에 대한 열쇠로서. 그리고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즉,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음부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해당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음부를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 그러나 필라델피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이 이미지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하데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입장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8절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과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라. 저 열린 문은 뭐죠? 전통적으로 이것은 이해되었습니다. 특히 대중계에서는 전도에 대한 언급으로 사용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7절에 비추어 볼 때. 이사야 22장과의 연관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권위의 상징인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메시아 왕국.

여기서 열린 문은 전도의 기회의 문이 아닙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열린 문이 있고, 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출입을 허용하는 열쇠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음과 지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리 무력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왕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은 사람에 의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9절에서 발견됩니다. 즉, 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만들겠다. 앞서 몇 개의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또한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또 다른 교회인 서머나 교회가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제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사람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에는 유대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 우리는 아마도 이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보호를 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마 통치 하에서 종교로서.

그들은 이 새로운 종교와 거리를 두고 싶어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일부, 특히 지방 당국; 우리가 말했듯이 지금까지의 박해는 아직 제국 전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전복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을 거부합니다. 순응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신들을 향하여,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 하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보존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실제로 비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입니다.

John은 실제로 내가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몇몇 본문에서는 때때로 이사야 45장과 14절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49장과 23절. 이사야 60장과 14절.

이 생각은 열방이 이스라엘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드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제 흥미롭게도 John은 이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오는 것은 단지 나라들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몸을 굽혀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이 본문을 거의 아이러니하게 사용합니다.

다시 한 번 필라델피아 사람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그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유대 회당에 속한 자들도 장래에는
절하고 인정하리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들이 이기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실한 증거를 유지하고, 10절을 이기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시련의 때로부터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보게 될 시련의 시간은 요한계시록 4장과 21절에서 더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다음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그들은 재판의 시간에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John은 아마도 그것으로부터 물리적인 제거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이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재판 중에도 말이다. 그리고 다가올 일의 한가운데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박해로부터 반드시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로마제국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부어주실 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둘째, 저자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도 참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 이미지는 모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기둥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의 형상입니다. 21장과 22장에도 공감됩니다.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도시로만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원으로 묘사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지 종말의 도시가 아닙니다. 종말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의 형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회전해서 새 예루살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흥미롭다. 기둥에도 궁궐의 말뚝이 어느 정도까지 반사될지 궁금하네요.

이사야 22장에서 엘리야김의 성전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회복하러 오실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뭔가에 대한 기대를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전서 3장과 같은 곳입니다. 성전 이미지가 사람들 자신에게 적용되는 곳입니다. 즉, 회복된 성전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구조 측면에서. 그러나 사람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백성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약성경 본문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게 됩니다. 1위.

그들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쏟아 붓는 심판에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충실한 증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마지막 교회로 인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이 순환 경로의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약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의 남동쪽.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은 아마도 일곱 교회 중 어느 교회에나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2장과 3장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서기 60년경에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지금 이 교회에 연설하고 있는 때로부터 불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로마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한 시민들로부터.

그들은 시민과 주민들의 부를 바탕으로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재건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 관해 잘 알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편지의 다른 부분에서 작용하게 될 최소한 한 가지 요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내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고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물 공급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기준 중 하나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곳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물 공급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라오디게아에 부족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수로 시스템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곳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수많은 이방 신들과 이교 신들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황제 숭배는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라오디게아 마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도시의 교회로 가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통치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느니라. 덩거나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지근해서 뭔가 놓친 것 같아요. 당신은 덩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미지근하기 때문에 당신이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덩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입에서 토해 낼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를 얻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를 위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권한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고 흰 옷을 입을 수 있어 부끄러운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도록 연고를 바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회개하십시오.

나 여기있어. 나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권세를 네게 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 중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과 같은 선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 선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박해가 없습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혜가 전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끔찍한 영적 상태. 그들의 부(富)가 가져온 안주와 타협 때문이다. 흥미 롭군.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교 숭배와 타협한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암시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완전한 안일함을 추구하십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부와 안락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증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부를 표현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의 언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물질적인 부와 물질적인 지위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진정한 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진정한 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황금의 언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안약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라오디게아 성은 부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이 서기 60년 지진 이후에 그것이 스스로 재건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약에 대한 언급도 있다는 사실. 이는 라오디게아에 안약 생산으로 잘 알려진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비해 당신은 실제로 가난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의료 센터와 안약의 평판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영적인 부를 증진시키는 것들을 얻으라고 그들에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시력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1장의 이미지. 그분은 아멘이시며 충실한 증인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흥미롭게도 언어는 이웃의 언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웃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20절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즉, 그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는 그들의 삶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와 사회 경제적 상황.

그러므로 교회의 상태는 물질적인 부의 하나이지만. 그리고 풍요로운 번영 환경에서. 그것은 영적으로 극도의 안일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적 무능함. 완전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3절과 6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공동체의 배경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를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지근한 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더위와 추위의 중간, 즉 그 중간쯤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고 차가운 것을 이항 대립으로 취급합니다.

, 중간에 미지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더위, 미지근함, 추위를 영적인 온도와 동일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오르는 것은 너무나 뜨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이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추위는 그 반대일 것이다.

전원이 꺼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커밋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스럽습니다. 반심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울타리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거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길의 소망스러운 중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이 John이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고 제안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흥미롭고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도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교한 수로 시스템을 통해 좋은 물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물이 파이프를 유입되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함께. 인식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다른 두 도시. 라오디게아와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그들은 물 공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였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목적으로 유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샘물에 목욕을 하러 각지에서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옐로스톤 공원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들. 미국에는 맘모스 온천이 있다. 그리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온천. 히에라폴리스는 라오디게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온수 공급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오더라구요
약용 및 치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시인 골로새도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었습니다.

물 공급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차갑고 상쾌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마시기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두 도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물 공급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온수 공급용입니다. 차가운 상쾌한 물 공급을 위한 것.

그러나 대신 라오디게아.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할 때쯤이면요.

미지근해요. 오래되었습니다. 미지근하다.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는 다릅니다. 그게 힐링에 좋아요. 골로새의 차갑고 상쾌한 물과는 다릅니다.

마시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과. 대신 미지근해요.

그것은 아무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그로테스크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 나은 비유입니다.

영적 온도보다 더 나은 비유입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는 커피 잔을 계속 채워 줍니까? 당신의 뜨거운 커피잔.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면 왜 계속 와서 물잔을 채워주나요? 미지근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십니다. 당신이 화끈했으면 좋겠어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처럼 치유에도 좋다. 아니면 네가 추웠으면 좋겠어.

마치 골로새의 차갑고 상쾌한 물처럼. 추운 것과 더운 것 모두 John에게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들을 위해서. 당신도 이웃 도시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좋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뜨겁고 차갑습니다. 그들은 뭔가에 좋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의 물 공급원과 같습니다.

미지근하다. 너무 역겹고 역겹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역겹습니다. 나는 당신을 입에서 토해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것은 소박하고 중도적인 기독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상황에 너무 안주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완전히 무능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를 찾고, 참된 시력을 찾고, 참된 옷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복의 언어까지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흰 옷을 입으십시오.

극복, 승리,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또한 라오디게아 도시의 상업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해결책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 쓸모 없음. 그들의 영적 빈곤, 실명, 불순함.

그리고 그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행동하십시오. 마지막 지침으로 3.20을 참고하세요. 교회에 마지막 지시를 내린다.

3장 20절을 보십시오. 잘 알려진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라오디게아에게 전하는 메시지 전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약간 잘못 읽히는 것 같습니다.

3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종종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읽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개인주의적 부르심으로서. 그리고 저는 이 이미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여기의 그림은 더 교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 밖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안일하고 무력해졌습니다.

.

그것은 사회에서의 부와 지위에 너무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의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 밖에 서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도 교회가 절기를 기념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교를 포함합니다. 아마도 애찬식이나 그와 비슷한 것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훨씬 더 아이러니한 친교. 이것이 절기를 축하하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라면.

그리고 함께 성찬을 축하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교회의 중심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 주위를 돌아다니는 사람.

그는 이제 그의 교회의 중심에도 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타협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감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에 의지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그 대신에 그들은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창조의 통치자. 충실한 증인.

그들 가운데로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교회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떤든 상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길 경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유의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나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권리를 주겠다. 내가 극복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인들이 회개하면 회개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타협을 거부합니다. 안주하는 삶을 그만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충실한 증인이 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이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자신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의 약속이 어떤 면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 다소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상황에 어떻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글썄, 어떤 의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통치를 약속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의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면에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4장과 5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찾습니다.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권은 온 하늘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도 다른 교회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약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극복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더 일반적인 것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약속.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음에 다가올 비전을 준비합니다.

4와 5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이 보좌에 앉으신 곳.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다소 엄격한 경고로. 그들은 나머지 재앙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의 안일함에서 충격을 주려는 시도로.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부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광경. 그리고 진정한 순수함.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비용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오직 두 사람만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받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평가.

대부분은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목하시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입니다. 그리고 이교도 로마 환경의 숙박 시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교도 신들을 숭배합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 종종 상업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그것과 분리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박해와 배척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타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너무 안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이교도 로마 제국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속한 이교도 사회. 그래서 2장과 3장입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1세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교회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기마다.

박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적어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 특히 서양에서는요. 그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인 박해는 거의 없습니다. 두번째.

그런 다음 2장과 3장을 봅니다.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각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말했습니다.

4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재해석해 드립니다. 상징에서. 묵시적인 관점에서.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비전적인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John이 실제로 말한 것을 해석하십시오.

2장과 3장에서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입니다. 약속과 함께. 때로는 전에.

때로는 직후에. 약속과 함께.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라. 2장과 3장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교회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한 유일한 길.

그들의 상황에서 깨어나는 것이 교회가 신실한 증언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신의 안일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타협, 그리고 영적 실명입니다. 충실한 증언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 속으로. 그리고 2장과 3장.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특히 타협하는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화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타임라인에 우리의 존재를 그려보려고요. 그것은 우리가 종말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신 요한계시록 4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 일곱 배의 영.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회의 실제 상황.

그리고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여 응답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충실한 증언을 유지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적대적인 이교도
환경에서. 그리고 그 증언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은 상관 없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장과
3장에서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적이고 일종의 묵시적인 부분입니다.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부터
22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부터 시작합니다.

진입점을 시작점으로 정렬합니다. 존의 비전. 비전의 주요 기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것이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의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과 그 맥락을 살펴보세요.

하지만 몇 가지 세부 사항도 살펴보세요. 특히 더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것 또는 문제가 있는 세부 사항 중 일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언어, 상징, 이미지의 형태로. 따라서 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비전의 다양한 부분과 부분의 주요 기능과 목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것은 계시록에 관한 Dr. Dave Mathewson의 강의입니다. 7과,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